

공감1인1촌 뉴스스  
**NEWSIS** 수도권 > 경기남부

## 시흥소방서, 생명 살린 구급대원 11명에 '하트 세이버'

등록 2022.06.28 10:41:28



위급 환자 이송·소생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소방서 소속의 119구급대원 11명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경기 소방 엠블럼과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시흥소방서는 28일 이들에게 관련 문장(紋章)과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트 세이버(Heart Saver)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 상태의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울러 병원 도착 전 심전도 또는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선정한다고 시흥소방서는 설명했다. 영광의 수상자는 소방장 심지현, 소방교 양희창, 정승목, 김주형, 김규태, 임시훈, 장선영, 한정호 등이다.

또 대체인력 정희정, 박수지, 강준규도 이에 포함되는 등 영광을 같이했다. 한선 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소방서 구급대는 잦은 출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훈련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제 사항에서 소생률을 높이는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